



한국마사회 장학관 숙소에서 집을 정리하는 입주생(왼쪽)과 체력단련실 모습. 서울 용산 장외발매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난해 2월 개관한 한국마사회 장학관은 개관 1년 만에 농촌 대표 장학관으로 성장했다. 사진제공 한국마사회

‘국민 체감형’ 사회공헌 “눈에 띄네”

152명 2.8대 1 경쟁률 뚫고 이달 입주 농촌인재 유치 등 지방 우대 강화 눈길 9개 층에 도서관·체력단련실 등 구비 용산구청 연계 재능기부 봉사도 계획

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이사장 김낙순)이 올해 상반기 한국마사회 장학관 입주생 선발을 완료했다. 154명 모집에 434명이 지원해 2.8대 1의 경쟁률 기록했다. 최종 152명이 선발되어 3월 중 입주할 예정이다.

1년 만에 농촌 대표 장학관으로 성장한 한국마사회 장학관은 개관 이후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입주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

영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방 인재를 우대하는 등 농촌지역 인재 유치를 힘썼다. 기존에는 입주대상을 농업인 또는 농업인 자녀로 한정했지만, 농촌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해 수혜대상을 늘렸다. 선발기준 중 거주지와 학교 간 거리 배점을 10점에서 30점으로 올려 원거리 지방학생 지원을 강화했다.

입주생 대상 간담회와 설문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점도 눈에 띈다. 식비가 부담스럽다는 입주생의 의견에 1식당 3000원이던 식비를 2500원으로 인하하고, 휴게실 이용시간 연장 등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올해는 입주생이 참여하는 자치위원회도 만든다.

또한 농촌지역 미래인재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재능기부에 대한 참여 의사가 높은 점을 고려해 용산구청 등과 연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도 계획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주한 이아랑 씨는 “용산역 근처여서 이동이 편리하고, 독서실, 스마트도서관 등 학업에 열중하기에도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해 졸업 전까지 있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장학관은 본래 용산 장외발매소였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난해 2월 개관했다. 용산 장외발매소로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지역사회 갈등을 상생의

공간으로 바꾸는 국민 체감형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9개 층에 걸쳐 숙소 32실과 공용휴게실, 스마트도서관, 식당, 체력단련실, 소모임실, 독서실 등을 구비해 154명을 수용한다. 이용요금은 보증금 10만 원, 월 입실료 15만 원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학관에 서는 전 구역 방역을 시행했으며, 열화상카메라로 체열을 측정하고, 입주생에게 해외여행이력 등을 제출토록 했다. 향후 매일 공용공간 소독을 하고,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비치해 입주생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마사회, 코로나19 피해 화훼농가 돕기

한국마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1인 1화분’ 캠페인, 야외 조경 개편 등 소비 활성화에 나섰다. 서울, 부산경남, 제주 각 사업장별로 로비에 봄맞이 대형 꽃장식을 설치하고, 사무실에는 꽃바구니를 비치했다. 1인 1화분 캠페인으로 직원들에게 나한송, 카랑코에, 신홀리페페 등 공기 정화와 산소 배출 효과가 좋은 미니 화분을 지원했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화훼 소비 촉진 활동을 통해 서울 기준 약 1만 송이의 꽃으로 로비와 사무실 조경을 완료했고, 추가적으로 사업장별 야외조경 개선 및 비용 조기 집행을 통한 농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마사회, 2학기 문화센터 회원 모집

한국마사회는 전국 29개 지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2학기 회원 모집을 4월 2일까지 진행한다. 강좌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홈페이지(www.문화공감센터.com) 또는 모바일 페이지(m.kra.c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 여부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문화센터 강좌는 미술·공예, 요가, 노래교실, 건강강좌 등 700여 개의 다양한 강좌를 운영 중이다. 2학기 수업은 4월 7일부터 6월까지 총 11회 실시한다. 법정 공휴일(국회의원 선거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은 문화센터 업무 및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지사별 강좌 운영일이나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른 일정 변경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또는 홈페이지(www.문화공감센터.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운 기자

한국경마, 스포츠 적합성·호감도 갈수록 증가

한국갤럽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한국경마의 스포츠 적합성과 호감도가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2019 한국경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경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한국 경마의 스포츠 적합성과 호감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 2018년도 56.1%였던 ‘스포츠 적합성 인식도’는 76.8%로 20.7%p 상승했다. 적합 사유는 ‘말과 기수들의 능력(기술)을 겨루는 것이라서’(47.9%), ‘스릴, 박진감, 경쟁 등의 관람요소’가 있어서’(81.7%),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15%) 등을 꼽았다.

경마 호감도 역시 64.6%로 16.7%p 증

가했다. 특히 20, 30대에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건전한 여가라서’(30.3%), ‘수익금의 일부가 사회공헌활동에 쓰이므로’(27.0%), ‘말이라는 동물에 호감이 있어서’(21.9%)라는 이유가 많았다.

재활·힐링스마 등 사회공헌사업 확대와 국제경주대회, 해외경주 성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마사회 사업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서 사회공헌사업 확대(83.2%)와 한국경마 해외무대 진출(81.5%)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고위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힐링스마를 소방공무원, 육군장

병, 방역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한국 경주마들이 두바이월드컵 카니발 등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여준 점도 한 몫 했다. 이밖에 경마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64.4%로 전년대비 8.4%p 좋아졌다.

김종길 한국마사회 부회장은 “경마를 도박이 아닌 스포츠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은 주목할 결과”라며 “앞으로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건전한 레저로 자리잡기 위해 스포츠성 강화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수익금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공헌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축구팬 64% “SON 빠진 토트넘, 맨유전 힘들거야” 농구토토 ‘스페셜N 46회차’ 766명 적중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 중간집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14일부터 16일까지 벌어지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7경기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7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 토트넘-맨체스터 유나이티드(12경기)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63.71%가 원정팀 맨유의 우세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양팀의 무승부 예상은 20.04%를 차지했고, 나머지 16.25%는 홈팀 토트넘의 승리에 투표했다.

현재 맨유는 승점45점(12승9무8패)으로 리그 5위까지 순위를 높였고, 토트넘은 승점 41점(11승8무10패)으로 8위에 위치하고 있다. 토트넘은 최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해리 케인의 부상 이후 손흥민까지 경기에서 나서지 못하면서 공격력이 저하됐다. 주재 무리뉴 감독은 벨리 알리, 루카스 모우라, 에릭 라멜라 등으로 경기를 이끌어 가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토트넘은 리그에서 3경기 째 승리가 없다. 2월 22일 첼시(1-2)전에 이어 울버햄프턴(2-3)전에서도 패했고, 최근 켈

저진 번리(1-1)전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했다. 11일 진행된 2019~20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라이프치히전에서도 0-3으로 패한 토트넘은 8강 진출에도 실패했다.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토트넘은 맨유에게 1-2로 패했고, 맨유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2무를 거두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토토판들의 기대와 같이 맨유가 토트넘을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 한 판이다.

꾸준히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레스터시티 역시 왓포드 원정에서 60.52%의 투표율을 기록해 손쉬운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왓포드 승리 예상과 양팀의 무승부 예상은 각각 20.13%와 19.35%로 집계됐다. 아스널(54.93%)과 울버햄튼(52.71%) 역시 50%대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해 우세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승무패 10회차는 오는 14일 오후 8시50분에 발매를 마감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최근 유럽 축구 일정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대상 경기의 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9~2020시즌 미국프로농구(NBA) 세 경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구토토 스페셜N 46회차 게임에서 700명이 넘는 적중자가 나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는 11일 열린 포틀랜드-피닉스(1경기)전, 골든스테이트-LA클리퍼스(2경기), LA레이커스-브루클린(3경기)전을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스페셜N 46회차에서 총 766명이 홈 및 원정 팀의 최종 점수대를 정확히 맞췄다고 밝혔다. 스코어를 살펴보면 포틀랜드-피닉스(1경기)전은 121-105(토토결과 120-100)로 포틀랜드가 승리했고, 골든스테이트-LA클리퍼스(2경기)전은 107-131(토토결과 100-120)으로 LA클리퍼스가 이겼다. LA레이커스-브루클린(3경기)전은 102-104(토토결과 100-100)으로 브루클린이 승리를 거두면서 1873,4배의 배당률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매치게임 1인당 평균참여금액을 집계한 결과, 4997원을 기록해 대다수 농구팬들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건전하게 게임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12일 “이번 회차의 경우 브루클린이 서브콘퍼런스 선두인 LA레이



커스에게 승리를 거두는 이번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구팬들이 적중 성공할 수 있었다”며 “NBA 사무국의 리그 중단 결정에 따라 리그 정상화 이후 발행될 스페셜N 게임에도 토토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적중 성공한 농구팬들은 내년 3월 11일까지 전국 토토판매점이나 IBK기업은행 지점에서 적중금을 찾아갈 수 있다.

케이토토 공식 페이스북 스포츠 상식퀴즈 이벤트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toto,proto)을 통해 13일 자정까지 마라톤과 관련 퀴즈를 맞히는 ‘스포츠상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퀴즈는 인간 승리와 한계 극복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마라톤과 관련해 지난 2001년 런던 마라톤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선수물 맞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는 스포츠토토 공식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 방문해 정답을 댓글로 입력하면 된다. 정답을 맞춘 1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를 구매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12일 “올림픽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마라톤은 고(고) 손기정 선수부터 황영조, 이봉주 등 대한민국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으로도 유명한 종목이다. 스포츠토토 페이스북에 방문하면 마라톤과 관련된 재미있는 상식을 알아볼 수 있으며 동시에 경품 추첨의 기회까지 주어진다”고 전했다. 이번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토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7일에 댓글 및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개별 공지한다.